

농업 관련 용어 너무 어려워요?

알기 쉽게 설명한 농업 통상용어



● UR과 WTO란?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란 말은 거의 모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산물 개방’ 하면 빠질 수 없는 용어입니다. 전면개방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6년 시작해 1994년 최종 타결된 무역협상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했지만, 실상은 당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 협상 타결로‘지구촌 무역경찰’격인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농산물시장도 이때부터 대부분 개방됐습니다.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했습니다. 여기서 개방이라는 의미는‘관세율이 매겨진다’는 뜻입니다. 누구든 관세만 내면 그 나라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지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개방이 보류됐던 쌀은 2015년 513%의 관세율로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흔히‘쌀 관세화’라고 부르죠. 다만 513%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베트남을 비롯한 5개 나라가‘513% 산출방식이 잘못됐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 DDA와 FTA란?

- 도하개발아젠다(DDA)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정한 관세와 보조금 한도를 더 내리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2001년 출범시킨 무역협상입니다. 논의 대상은 농산물 외에도 비농산물·서비스·지식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합니다.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죠. 개발도상국·선진국, 수출국·수입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보니 당초 타결 시점인 2004년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자유무역협정(FTA)은 마음이 맞는 특정국끼리만 서로의 시장을 여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과거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처럼 두나라가 맺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10여개 나라들이 단체로 참여하는‘메가 자유무역협정(FTA)’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합의한 관세 같은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반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규정은 협상 참여국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방 수준이 도하개발아젠다(DDA)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는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 수출과 투자가 촉진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국에 견줘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 TPP와 RCEP이란?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말 그대로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일본·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2010년 3월 시작된 협상은 30여차례의 공식·비공식 논의를 거쳐 5년7개월 만인 2015년 10월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중간에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2년가량 지체됐죠. 관세는 물론 검역처럼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도 대거 허무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은 아시아와 태평양 인근 국가들이 출범시킨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합니다. 당초 참여를 꺼렸던 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 적극적인 자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협상 막바지에 들어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은 개방 수준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국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발효 후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을 80%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 AMS란?

-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업보조금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농업보조총액(AMS) - 최소허용보조(DM) - 블루박스(BB) - 그린박스(GB)’가 그것입니다. 가격을 지지하거나 생산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른 것이지요, 그중에서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가 바로 맨 왼쪽의 농업보조총액(AMS)입니다. 흔히‘감축대상보조’라고도 부릅니다. 쌀 변동직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조금은 맨 오른쪽의 그린박스(GB)입니다. 감축의무가 없어서‘허용보조’라고 부릅니다. 논의 형상만 유지하면 일정액을 주는 쌀 고정직불금이 대표적이죠.
- 최소허용보조(DM)이나 블루박스(BB)는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을 갖습니다. 일정한 제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블루박스(BB) 보조금 규모가 아주 적으면 최소허용보조(DM) 감축 의무가 없죠.
- 최소허용보조(DM)이나 블루박스(BB)는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을 갖습니다. 일정한 제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블루박스(BB) 보조금 규모가 아주 적으면 최소허용보조(DM) 감축 의무가 없죠.
-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후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은 사실상 농업보조총액(AMS) 감축싸움입니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막대한 투자를 통해 농업 기반을 탄탄히 다졌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전부터 농업보조총액(AMS)를 줄이는 대신 고정직불제 중심의 그린박스(GB)를 대폭 늘리면서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에“농업보조총액(AMS)는 무역을 왜곡할 수 있으니 대폭 감축하라”고 요구합니다. 개도국은“왜 wirman 줄여야 하느냐?”며 반발하죠. 선진국이면서도 보조금 규모가 너무 많은 미국으로선 농업보조총액(AMS)를 줄이기엔 한계가 있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이 10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의 쌀 변동직불금은 가격 하락분을 메워주고, 또 그만큼 소득이 안정되기 때문에 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보조총액(AMS) 요건에 딱 들어맞죠. 하지만 농업보조총액(AMS)는 무한정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조4900억원 입니다. 공식에 따라 산출된 올해 변동직불금 총액은 1조4976억원이지만,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때문에 초과분 76억원은 지급되지 못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